【논 문】

‘신중국’ 성립 이래 중국인의 신장(新疆)·둥베이(東北) 지역인식의 변화

박 장 배*

차 례

1. 서론
2. 지방행정체계와 지역인식의 변화 추세
3. 신장의 개발과 지역성 변화
4. 둥베이의 개발과 지역성 문제
5. 맺음말

국문초록

民國시대와 비교하여, 1949~1950년대 초반 사이에 ‘신중국’의 행정체계는 변화가 본질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5~6개의 ‘大行政區’가 존재했고, ‘省政府’를 ‘省人民政府’라는 식으로 ‘人民’이 덧붙여졌다. 동시에 당시에 1950년대에는 중국에서 民族區域自治制度’와 같은 매우 독특한 지방행정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행정구역의 변동 문제가 아니라 통치기구에서 지명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大行政區’와 유사한 大圈域(大區域)의 존재에 주목하여 큰 규모의 지역단위에 대한 중국사회의 신중국 초기의 인식변화를 검토해 보았다. 주요 검토 대상은 新疆과 東北인데, 新疆은 최근까지도 ‘西域’이라는 통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東北은 清代에는 ‘龍興之地’로서 封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3대 장군의 관할구역이었다. 그 명칭은 清末에 ‘東三省’개념이 등장하여 쓰였고, 일제의 침략을 맞아 ‘東北’으로 정리되어 갔다.

www.kci.go.kr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최근 中國學界의 일각에서 두 지역에 대해서도 '東北工程'과 '新疆項目'을 추진하여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졌다. 이들 공정항목의 존재는 중국학계에 慣行的으로 존재하는 대구역 개념을 드러낸 것이다. 이들 대구역은 대체로 '신중국' 초기의 '대행정구'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대구역 단위의 분석과 그 인식변화에 대한 추적도 일정한 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대구역, 행정구역, 신장, 둥베이, 지역인식

1. 서론

'邊疆'은 단순히 외부 세력에 대한 방어벽이 아니라 경제의 허브이자 초국경 경제권의 중심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변강'에 대한 중국 사회의 관심은 지대했는데 최근 중국에서는 '변강' 연구와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① 최근 중국 국가도서관에는 기존의 변강문헌 관련 복무의 기초 위에서 '중국 변강문헌연구중심'이 설립되었다.[1] ② 또한 쾅야밍(匡亞明)특별초빙교수 청니나(程妮娜)가 주관하는 "중국 역대 변강 치리 연구(中國歷代邊疆治理研究)" 항목(2011년 시작)은 변강지구를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그 중 하나의 변강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 어느 변강민족에 대해 연구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중국의 전체 변강지구를 공간으로 하여 중국역대변강통치관리를 '중화일체'의 발전궤도 속에 포함시켜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2] ③ 그리고 2012년 6월 2~3일에 현시대 변강이론의 창조와 발전을 위한 논단이 중앙사회주의학원에서 거행되었다. 논단의 개막과 함께 중앙민족대학 민족학과 사회학 학원의 중국 변강연구중심의 성립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3]

1) "國家圖書館中國邊疆文獻研究中心"正式挂牌成立, 2012-08-30, (http://www.ccnt.gov.cn/xxfbnew2011/xwzx/gzdt/201208/t20120830_262518.html 검색일 : 2012.8.30)

2) "中國歷代邊疆治理研究"項目努力推出代表國家水平的標志性成果 2012-05-23 (http://news.jlu.edu.cn/new/?mod=article&act=show&id=17691 검색일 2012.8.10)

3) 吳兢, 專家學者熱議如何推進当代邊疆理論研究, 2012年06月08日08:51 中國共產黨新聞网 (http://theory.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갈수록 고조되는 '변강'연구는 역으로 중국 내외부에 변강연구의 필요성, 그 이면의 변강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1912년 수립된 중화민국 정부는 청대의 판도를 계승한다고 선언했으나, 실상 국가가 인식하는 판도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통치지역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그러한 지역은 대부분 '변강' 지역이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나서 변강에 대한 국가적 통합은 강력하게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판도의 확실성' 속에 기존 판도에 대한 내외부의 논란과 분쟁 등 '판도의 형성과정'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4] 긴 국경선과 해안선의 존재를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변경 관리는 성공적인 편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949~1950년대 초반 사이에 민국시대와 비교하여 '신중국'의 행정체계는 변화가 본질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5~6개의 '대행정구'가 존재했고, '성정부'를 '성인민정부'라는 식으로 '인민'이 덧붙여졌다. 동시에 당시에 1950년대에는 중국에서 '민족구역자치제도'와 같은 매우 독특한 지방행정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행정구역의 변동 문제가 아니라 통치기구에서 지명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대행정구' 등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었으나, 이와 함께 규모가 큰 지역의 명칭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동북' 등 대단위 지역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소략하다. 이러한 지역인식에 대한 연구는 '군구'와 '중공당 지역국' 등 다양한 지역구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

people.com.cn/GB/40534/18115346.html 검색일 : 2012.8.10) 중국 청사연구소의 연구원 마다정(馬大正)은 중국 변강연구에 중국적 시각과 세계적 시각을 겸비한 큰 시각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신장 사회과학원의 연구원 반즈핑(潘志平)은 지정학적 각도에서 봤을 때 신장의 전략적 지위가 지금처럼 중요했던 적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4) 박선영, 2008,「중화인민공화국의 판도 형성과 新疆-新疆의 특수성과 新疆생산건설병단의 국내외적 도전」『역대 중국의 판도 형성과 변강』 신대학교출판부, 336쪽.

중국 국내 차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도 지역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중국은 비동맹운동에 참여하여 미국과 소련과는 차별화된 국제전략을 구사하고자 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족 중심의 국가지만, 건국 전후에 여러 소수민족지역을 확보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지역현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행정구역의 정비, 중국의 국가적 차원의 조사와 계획 등 새로운 요소 등의 전개과정을 조사하여 지역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지역개념의 창출 과정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지방행정체계와 지역인식의 변화 추세

중국 역대왕조의 강역은 변동이 상당히 컸고 대부분 명확한 경계를 갖지 않았다. 1911년 청조가 붕괴하고 한족 중심의 현대 민족국가가 수립될 때부터 '하나의 중국' 정책은 기본 국책이었다. 하나의 중국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의 민족은 '國族', '中華民族 대가정'으로 정리되었으며, 하나의 국가는 통일국가(다민족통일국가)로 정리되었다. 중국에서 민족에 대한 공식담론은 대략적으로 단일민족론・오족공화론・연방제론・통일전선론・대가정론・다원일체격국론 등 다양한 용어로 제기되었다. 秦代에 郡縣制라는 2급제가 시행된 이후 3급제와 2급제가 시기별로 나타나다가 원대 이후 3급제가 정착되었다. 청대에는 省－府－縣 3급제가 시행되었고, 민국 초기에는 省－道－縣 3급제가 시행되다가 난징 국민정부 시기에는 명의상 省－縣 2급제가 시행되었고 실질적으로 省－行政督察區－縣의 3급제가 시행되었다.[5]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담론은 민국시대에는 省과 縣 등 2급제나 3급제로 중국 전역을 일원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www.kci.go.kr

5) 張永理, 2012.2,「我國行政區划層級歷史變遷－兼談其對省直管縣体制改革的啓示」『北京行政學院學報』, 6쪽.

시기에 들어와서 '신중국(이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으로 사용하기도 함)'은 省, 地市, 縣市, 鄕鎭 4급의 구조를 구축했다. 동시에 각 층급 사이에는 副省級도시, 副地級開發區와 副縣級管委會 등의 準地方行政層級이 있다.[6] 신중국은 여기에 민족구역자치제도를 병행하여 채택하고 실시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중국 전역은 省에서 縣까지 일반 省·市와 민족구역자치지방의 이원적 구성을 갖게 되었다.[7]

또한 신중국 지방행정체제에서 주목할 점은 '大行政區'의 존재다. 신중국에서는 두 시기에 걸쳐 대행정구를 설치했다. 첫 번째 시기는 1949년 내전의 승리 후에 전국을 6개의 대행정구로 편성했던 1949~1954년의 국가통합기였다. 두 번째 시기는 大躍進운동의 실패 후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던 1961~1966년의 시기다.[8] 이들 대행정구는 東北, 華北, 華東, 華南, 西南, 西北 등으로 구분하는 지역구분법과도 닮았지만,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軍區와 숫자나 지역에서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신중국의 행정구획 구성과 그 변경 과정은 중국정부의 '국토의 파악'과 변강의 개발과 일정한 연관을 갖는다.[9] 중국 정부는 판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치군사적 수단과 함께 '서부대개발전략'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매개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 통합 수단은 전국적으로 일관된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지역마다 상당한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신장 지역에는 '생산건설병단'과 같은 민군복합체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공간전략의 측면에서 신장과 둥베이 지역에 대한 중

6) 張永理, 같은 글, 9쪽.

7) 중국의 省級 단위는 개혁개방 이전 시기의 29개에서 33개로 늘었다. 33개의 내역은 23개의 省(대만 제외)과 4개의 직할시, 5개의 자치구, 2개의 특별행정구 등이다. 여기에 성급 단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제관리권을 갖는 6개 計劃單列市와 8개의 副省級市, 상당한 경제자율권을 갖는 18개의 沿海開放市 등이 있다.

8) 정재호, 1999,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론 : 분권화 개혁의 정치경제』 나남출판, 43쪽. 주 40) 참조. 중국의 연구들에서는 첫 번째 시기의 대행정구는 종종 언급되지만 두 번째 시기의 경우에는 논의 자체가 빈약하다.

9) 이강원, 1999.12, 「'邊疆'과 '民族'의 생산 : 중국 따싱안링 산지 어룬춘-다민족지구 현지조사 보고」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44쪽.

국인의 지역인식의 대체적인 변화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17년과 문화대혁명 시기의 지역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요소의 등장 개황을 파악한 뒤에 그 지정학적, 국가전략적, 동아시아적 차원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변화와 함께 인구구성 변화, 산업배치 등 여러 차원의 요소가 갖는 지역적 함의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중국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자연지리구역은 크게 칭짱고원지역, 서북건조반건조지역, 동부계절풍지역 등 세 계단으로 구성된다. 또한 방식을 달리하여 유목구역, 밭농사지역, 논농사지역 등으로 삼등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대의 苗疆, 蒙疆, 回疆, 準疆, 新疆 등은 대부분 민족과 그 거주지가 일치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권역이었다. 이에 반해 19세기 대권역 구분을 제시한 스키너(G.W.Skinner)는 하천과 산맥을 기준으로 중국을 8개 지역, 즉 북중국, 북서중국, 양자강 상류, 양자강 중류, 양자강 하류, 동남연해, 영남, 운남귀주 등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감강유역과 만주를 더해 스키너는 10개 대권역으로 구분하였다.[10] 이것은 관행·관습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 이론적 접근을 꾀한 것으로 각국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양쥔은 현재시기의 중국을 5계통 12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11] 이는 자연지리 구분을 참작했지만 형식적인 성별 구성을 강조한 분류이다.

대권역과 함께 중요한 것은 역시 중앙정부가 구축한 행정구역 체계다. 역사적으로 행정구역 편제방식은 당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국 역사상 지방행정구역 경계선의 획분에는 줄곧 '개이빨처럼 서로 맞물림(犬牙相入)'과 '산천의 형편(山川形便)'의 상반되는 두 가지 원칙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唐 이전에는 주로 '산천의 형편' 원칙에 따라 지방행정구역을 구분하였다. 이 방식의 약점은 지역의 독립성이 두드러져 할거의 가

10) 이준갑, 2008,「明淸時代 地域史硏究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摸索」『中國史硏究』第53輯, 164쪽.

11) 楊軍, 2007,『中國區域發展歷程』長春 : 長春出版社, 14쪽.
<현대 중국 구역연구 중의 區系 총괄표>

www.kci.go.kr

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12] 당 이후 '개이빨처럼 서로 맞물림'의 원칙으로 지방행정구역을 설정한 결과, 행정구역은 자연지리와 문화구역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현재의 중국 행정구역도 일부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안고 있다.

행정구역의 편제는 대체로 이전의 것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새로운 왕조나 국가가 들어서면 크게 바뀌기도 한다. 행정구역은 여러 가지 지역구분법의 하나지만, 공식성을 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연찮게도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는 왕망의 新과 함께 지명이 가장 격심하게 변경된 시기로 손꼽힌다. 1949년 대륙을 석권하고 집권한 마오쩌둥의 중국은 한국전쟁이 종결되자, '민주개혁'을 추진하였다. 민주개혁은 지주와 봉건세력의 해체를 표방했는데 사실상 혁명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민주개혁은 사회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사회주의적 개조를 추진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중국의 집권자들은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경제의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했고, 동시에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사회역사조사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자치를 누리던 많은 소수민족 지역에 중국식 관료체제가 도입되었다. 17년 동안 매우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해 가던 중앙정부는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권력투쟁 와중에서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대동란의 수렁에 빠져 들었다.

北方계통	草原區 新疆區	지금의 내몽골자치구 포함 지금의 신장위구르자치구 포함
中原계통	동북구 동부구 서부구	지금의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을 포함 지금의 산둥성, 허베이성, 허난성, 베이징시, 톈진시 포함 지금의 山西省, 陝西省, 甘肅省, 寧夏回族자치구 포함
江南계통	江浙區 荊楚區 巴蜀區	지금의 江蘇省, 浙江省, 安徽省, 上海市 포함 지금의 후난성, 후베이성, 장시성 포함 지금의 쓰촨성, 重慶市 포함
남방계통	岭南區 閩臺區	지금의 廣東省, 하이난성, 廣西壯族자치구 및 홍콩, 마카오특별행정자치구 포함 지금의 푸젠성, 타이완을 포함
고원계통	雲貴區 青藏區	지금의 윈난성, 구이저우성 포함 지금의 칭하이성, 西藏자치구 포함

12) 楊軍, 2007, 『中國區域發展歷程』 長春 : 長春出版社, 15쪽.

이 연구는 성 중심의 지역구분에 유의하면서 관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권역의 범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가 지역인식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명혁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어떤 지리개념과 인식이 새로 등장하였는가를 살펴본다면 지역인식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의 전개에 따라 중국에서는 '삼선개발'이니 하는 새로운 지역개념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마치 1999년 무렵의 서부대개발의 지역구분을 일부 연상시킨다. 지명 개조의 논리는 사회주의 건설 등이 내세워졌으나, 실제로는 매우 한족 중심적인 것이었고 민족적인 색깔은 부정적인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냉전의 정점에 있던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지역인식에 대한 연구는 그 이전 시기와 그 이후 시기의 활발한 연구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3. 신장의 개발과 지역성 변화

중국학계는 2000년에서 2003년에 걸쳐서 '中國邊疆經略史', '中國海疆通史', '東北通史', '北疆通史', '西域通史', '西藏通史', '西南通史'로 구성된 ≪중국변강통사총서≫를 中州古籍出版社에서 출간했다. 여기에서는 신장 지역을 전통적인 용어로 '西域'이라고 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의 변강학계는 현재 중국의 육지변경지대 전체를 포괄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東北工程'(2002~2007)과 '新疆項目'(2004~2009)의 존재다. 중국변강학계는 1986년 이래 中國藏學研究中心 등의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여 티베트학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것은 중국의 소수민족 지역 중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티베트와 신장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중국측의 입장에서는

www.kci.go.kr

자연스런 대책이었을 것이다.[13]

≪중국변강통사총서≫프로젝트는 중국학술계가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을 보다 강조하기 시작한 징후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티베트나 신장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국제적 논란이나 내부 소요 등의 문제가 있지만, 중국동북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북공정'은 단순히 지역균형발전론의 시각이 강해진 것뿐만 아니라 북한요소의 부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2000년대 첫 10년동안 중국학계 일각에서 추진된 변강학 구축운동의 양 날개가 '東北工程'과 '新疆項目'이라는 점과 1950~60년대에 대규모 인구이동이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두 지역의 지역정체성의 변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50년대 이래 중국에서 遼東이나 滿洲는 동북으로 대체되었지만, 西域은 만주와는 다른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60년에 서한이 서역도호부를 설치한 이래 신장 지역은 '서역'으로 불렸다. 좁은 의미의 '서역'은 전한대 이래 남강(南疆) 지역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의 신장은 東漢 시기 이래 흑해 연안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을 지칭했다. 신장은 청조가 강희, 옹정, 건륭 3대 황제의 70~80년에 걸친 싸움을 통해 정복한 지역이다. 청대에는 '서역'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지만, 천산 남북을 '準疆'과 '回疆'으로 구분했다. 남강지역은 회강, 북강지역은 준강으로 불렸다. 이리를 중심으로 한 준가르부는 톈산 이북을 통치했다. 톈산 이남의 지역은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1750년대에 청조 공문서에 '신장(新疆)'이 나타나 '서역'을 대체하기 시작했다.[14] 사실 '신장'이라는 용어는 윈난, 구이저우, 쓰촨 등지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사용했다.

---

13) 중국학계에서 매우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짐작되는 臺灣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느껴지며, 中國社會科學院 臺灣研究所 등의 연구활동도 그리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대륙의 여러 측면의 타이완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적지 않은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4) 齊清順, 1993.2, 「"新疆"的由來和發展」『新疆地方志』, 36쪽.

청의 신장 정복 과정에 대해서는 국적에 따라 극명한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중국학계에서는 그 과정을 '통일 과정'으로 파악한다. 반면에 중국 이외의 학계에서는 많은 역사가들이 '정복과정'으로 파악한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레오니도비치 티흐빈스키(Сергей Леонидович Тихвинский)는 '예로부터 신장은 중국 영토였다'는 중국학계의 주장에 대해 한대의 지배가 짧고 한정적이었고 그 지배도 700년 동안 단절되었으며 청조는 독립된 준가르국에 대해 피의 정복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15] 그는 중국 변강의 여러 소수민족이 중화민족의 구성부분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만주족, 몽골족, 티베트족, 신장의 여러 민족을 비중국민족이라고 하였다. 17～18세기 아시아 최대의 침략자는 만청제국이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형성사에 대한 이해도 크게 달랐다. 그에 의하면, 1769년의 캬흐타 조약으로 인해 러시아는 청에게 40년 동안 개척한 토지를 잃었다.[16] 이렇게 티흐빈스키의 인식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형성사에 대해서도 중국 학계의 인식과는 매우 달랐다.

티흐빈스키와 유사하게, 피터 C. 퍼듀는 18세기 "청－준가르의 갈등을 국가 건설 경쟁 과정으로 분석했는데, 그 과정에서 쌍방은 경제적・군사적 자원들을 동원하고, 통치 조직들을 구축하고, 정복과 통치의 이념들을 발전시켜야 했다."[17] 팽창과 변경에 초점을 두는 퍼듀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식민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청의 준가리아 정복도 세계적인 차원의 식민지화의 일환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위구르(Uygur)라는 말은 타림분지의 오아시스 주변에 거주하면서 이슬람을 믿고 투르크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구소련이나 중국 정부에 의해 위구르라는 민족 명칭이 사용되기 이전에, 이들은 범투르

15) 肖之興, 1980.2,「駁齊赫文斯基對我國新疆歷史的歪曲」『中央民族學院學報』, 25～29쪽.
16) 黃定天・白云, 2009,「俄罗斯著名中国学家 С・Л・齊赫文斯基」『黑龍江社會科學』, 2009年第4期(总第115期), 23쪽.
17) 피터 C. 퍼듀 지음, 공원국 옮김, 2012,『중국의 서진－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사』도서출판 길, 657쪽.

www.kci.go.kr

크와 범이슬람이라는 정체성 이외에 위구르라는 독특한 집단적 유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이 해체되어 여러 국가가 독립할 때 범이슬람주의나 범투르크주의가 대세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구소련 시기의 지역구분에 따라 독립국들이 수립되었다.[18]

소수민족의 지역화 전략은 중국에서도 강력히 추진되었다. 1953년 시작된 민족자치지방의 설립으로 위구르족의 집거지인 남서부의 호탄, 카스, 악수 지구와 동북부의 하미, 투르판 지구가 위구르족이 아닌 다른 소수민족 자치구역에 의해 중간이 단절되었다. 이는 위구르족의 이웃 동족 지역이나 외부와의 연계를 통제한 공간전략이었다.[19]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청의 신장 정복의 중요성이나 신장 정복이 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의 지대함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신장에서 한족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이미 청대에 시작된 것이며, 1884년 11월 신장성의 설치는 그러한 변화를 반영한 측면도 있었다. 신장성의 설치는 신장이 군사적 점령지로서 새로 편입된 영토('新疆')에서 내지와 동일한 行省 지역으로 편입시킨 조치였고, 이는 지역 개념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다. 이후 신장의 역사에서 지역의 내실을 채우기 위한 신장 지역 개발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1884년 11월 신장 건성 후에 변경의 도시가 된 이리는 신장의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지가 되지 못하고, 디화(迪化 : 지금의 烏魯木齊(우룸치))가 중심이 되었다.[20] 우룸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도 신장의 중심도시이다. 사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경내의 다른 소수민족의 자치주와 자치현이 모두 성립되고 난 후에 성립되었다.[21] 성립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18) 이강원, 2002.3, 「중국의 민족식별과 민족자치구역 설정 : 공간적 전략과 그 효과」『대한지리학회지』37-1, 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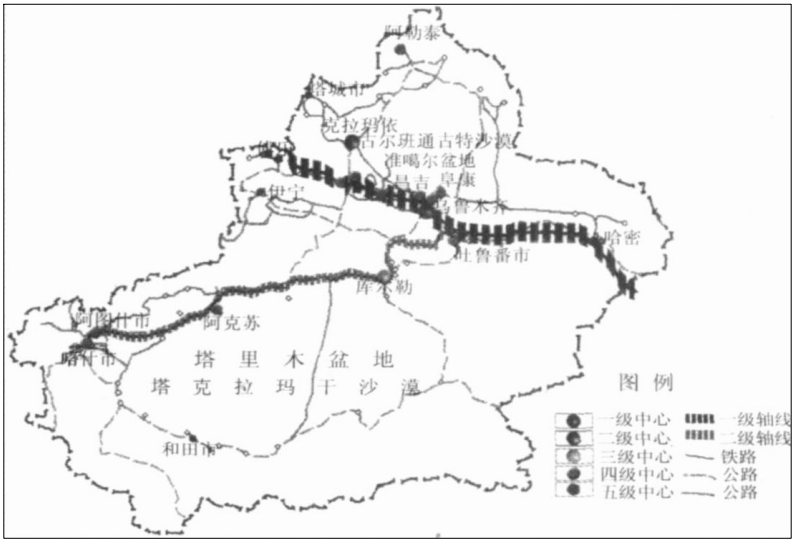
19) 이강원, 2002.3, 같은 글, 『대한지리학회지』37-1, 87~88쪽.

20) 童遠忠, 2011, 「新疆建省与近代新疆社會變遷」『新疆大學學報(哲學·人文社會科學版)』, 2011年7月 第39卷第4期, 51쪽

21) 현재 중국 전체에 존재하는 민족구역자치지방은 자치구가 5개, 자치주가 30개, 자치현이 117개, 자치기가 3개로서 모두 155개의 단위가 있다.

www.kci.go.kr

자치구역의 명칭 문제였다. 명칭에서 위구르인들의 독립성이나 국가적 실체를 연상시키는 용어를 피하면서 현재와 같이 '신장위구르자치구'가 되었다. 신장의 서북, 동북, 서남은 각기 독립국가연합, 몽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인도와 접하고 있다. 변경선은 2,019km에 이른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넓이가 166만 제곱킬로미터로 중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성구(省區)이다. 그것은 전체 중국의 1/6 넓이다. 신장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카스는 카라치까지 2300km, 베이징까지 5200km, 상하이까지 5300km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는 위구르족을 주체로 하여 47개 민족이 있다. 신장의 남쪽에는 쿤룬산(昆侖山)과 카라쿤룬산(喀喇昆侖山)이 있고 북쪽에는 알타이산(阿爾泰山)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톈산(天山)이 있다. 타림, 준가르, 투르판 3대 분지가 있다.



〈그림 1〉 신장 구역발전 현황 점축 계통도[22]

www.kci.go.kr

22) 蔡文春・楊永平・楊德剛, 2008.9,「新疆區域發展的空間模式研究」『干 旱 區 資 源 与 环』第22卷 第9期, 16쪽.

신장의 역사에서 보면, 중국 본부와의 교통로 개선은 지역통합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고대 실크로드 개통 이래로 고대의 신장 지역은 동서교통의 간선도로 상의 일부를 담당하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교통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한 것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철로의 개통이었다. 물론 철도 개통 이전에도 상당한 인구이동이 진행되었다. 1999년 이래 중국 중앙정부는 '西部大開發戰略'이라는 이름으로 서부로 호명된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서부의 주요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신장 지역이다. 현재 중국정부의 신장 도로망 계획은 우룸치시를 중심으로 하는 방사상의 고속도로망을 형성함과 동시에 Y자형 간선도로망과 '삼횡삼종'의 도로망 구조를 형성하려고 한다.

더욱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문제는 철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10년대 초에 손중산은 10만 마일의 철로 건설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 신장 부분은 1만여 마일이었다. 그러나 신장에서 철로의 도입은 이후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1958년에 처음으로 신장 경내에 철로가 놓였고, 1963년 11월에 란신철로가 우룸치와 통하게 되었다. 곧이어 1960, 70년대 신장생산건설병단은 중파공로를 건설했다. 최근에는 제2 대륙교, 즉 산둥성 롄윈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이르는 국제철도를 강조하기도 한다. 제1 대륙교는 러시아의 나호드카(Nakhodka)를 기점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 이르는 국제철도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이후 신장 개발을 이끄는 주요 동력은 한족 이주민의 신장 유입이었다. 근래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돼지고기를 먹는 광시 좡족 자치구를 제외하고 민족지구에서 돼지수의 증가는 한족 인구 증가의 시기와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의 한족-소수민족의 지역적 분포는 주로 1958년의 대약진운동과 1966~1976년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그 기초가 이루어졌다.[23]

www.kci.go.kr

23) 이강원, 2002.3, 「중국의 민족식별과 민족자치구역 설정 : 공간적 전략과 그 효과」『대한지리학회지』37-1, 88쪽.

신장자치구 정부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2011년 말까지, 신장의 총인구는 2,208.71만명인데, 그중 소수민족 인구는 약 60%를 차지한다. 자치구전체에는 14개의 地·州·市가 있는데,[24] 그중에는 5개 자치주,[25] 7개 地區, 2개 地級市가 포함되며, 88개 縣(市)에는 32개 邊境縣(市), 6개 민족자치현, 5개 현급직할시가 있다. 857개 鄉鎭에는 42개 民族鄉이 포함된다. 신장생산건설병단은 자치구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14개 師, 175개 農牧團場을 관할하며, 총인구는 약 257만 명이다.[26] 257만 명 안에는 26만 정도의 소수민족 인구가 포함되어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12% 정도가 생산건설병단 소속이라고 할 수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 신장 지역에 진주한 중국인민해방군은 신장을 개발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건설하였다. 신중국 정부는 1954년부터 집중적인 하방 캠페인을 통해 한족들을 대대적으로 신장으로 이주시켰다. 1955년 9월에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수립되었다. 1959년에는 51만여 명에 달하기도 했다. 신장에 대한 한족 이주는 1954~1959년, 1964~1969년 등 두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앞의 시기는 중앙정부가 강소, 안휘, 호북, 하남의 근 30여만 명의 청년들을 가족들과 함께 이주시킨 결과였다. 두 번째 시기는 주로 문화대혁명의 혼란 속에서 자발적으로 한족들이 신강으로 이주한 것에 따른 현상이었다. 이러한 인구이동은 통해 1949년 당시에 6.7%에 불과하던 신장지역의 한족 인구는 1990년에는 37.58%로 높아지게 되었다.[27] 신장의 인구는 1949년 433.34만 명에서 2005년에는 2010.35만 명

24) 그것은 烏魯木齊市, 克拉瑪依市, 吐魯番地區, 哈密地區, 昌吉回族自治州, 博爾塔拉蒙古自治州, 巴音郭楞蒙古自治州, 阿克蘇地區, 克孜勒蘇柯爾克孜自治州, 喀什地區, 和田地區, 伊犁哈薩克自治州, 伊犁哈薩克自治州塔城地區, 伊犁哈薩克自治州阿勒泰地區 등이다.

25) '신중국'에서는 '조사하지 않으면 발언권 없다'는 마오쩌둥의 모토처럼,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민족사회역사조사 등 다양한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1950년대의 사회역사조사와 민족식별 공작은 그러한 조사활동의 일환이었다. 부분적인 조사만이 진행되었던 민족지역의 경우 국가권력의 전면적인 조사는 사실상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조사였다.

26) http://www.xinjiang.gov.cn/xjgk/xjgk/2012/207070.htm 검색일 : 2012.10.25

27) 박선영, 2006.10,「중화인민공화국의 판도(版圖) 형성과 신강-신강의 특수성과 신강생산건설병단의 국내외적 도전」『중국사연구』제44집, 408~411쪽.

으로 연평균 2.79%로 늘었다. 이것은 1년에 28.16만 명이 늘었고 비율로는 2.79%가 늘어난 것이다.

신장으로 한족이 이주한 현상은 1950년대 말에 란저우와 신장 간의 철도가 개통되면서 쉽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20세기초에 만주철도가 개통되면서 화북인의 동북이주가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직적인 이주정책이 인구이동에 큰 기여를 했다.[28] 여기에는 소련을 견제하고자 하는 중국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인구수와 구성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여기에서는 1950~60년대 신장에 대한 행정구역 정비, 인구이동, 지역개발 사이의 연동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가장 큰 특징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동급의 신장생산건설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1954년 10월 설립되었다가 1975년 3월에 폐지되었지만, 1981년 12월 신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산건설병단을 다시 설치하였다. 이 생산건설병단은 일반 행정체계와는 독립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분산된 개간구역 분포를 보여주고 있었다.[29] 신장에 생산건설병단이 설치되고 오늘날까지 존속하게 된 이유는 이전의 소련과의 갈등, 그리고 현재 동투르크스탄 지지세력의 존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장의 민족지역이라는 측면과 함께 변경지대라는 요인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성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경우 농업개발의 의미와 국방력 강화의 의미가 큰

28) 신장의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몇몇 연구를 꼽자면 다음과 같다. ① 胡煥庸, 1984.1,「新疆人口地理与人口區划」『人口研究』② 周建新, 2006.1,「試論新疆人口、資源、环境与經濟發展中的矛盾与對策」『新疆職業大學學報』③ 孟紅莉, 2006. 2,「新疆兵團的人口遷移和人口流動現狀研究－以兵團農八師石河子爲例」『西北人口』④ 孫建光, 2006.3,「人口分布對新疆經濟發展的時空效應研究」『新疆財經學院學報』⑤ 劉月蘭, 2007.2,『新疆生產建設兵團人口遷移研究』,『西北人口』⑥ 滿蘇爾·沙比提; 熱合曼·玉素甫, 2007.6,「建國以來新疆人口時空動態變化特征及其成因分析」『人文地理』⑦ 李艷榮, 2008.1,「新疆生產建設兵團遷移人口對新疆民族關系的作用」『蘭州學刊』.

29) 姚凱·胡德, 2011,「特殊行政區划体制下的城市規划探索－以新疆石河子市總体規划爲例」『城市規划學刊』2011年 1期, 77쪽.

신장생산건설병단은 이주정책이 행정구역 개편에 영향을 끼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1950~60년대 한족의 대량 이주는 신장 지역, 특히 북강 지역의 인구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한족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신장 지역으로 이주한 한족 인구는 기존 도시의 이중화, 곧 한족지역과 소수민족지역의 이중구조 형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위구르민족 등 소수민족의 자치구의 지위는 변화가 없으나 내용상으로는 내지의 일반행정구역과 동일한 민족자치지방보다 縣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 추세를 통해 지역성 자체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중국' 초기에 신장 지역은 소수민족의 이반과 러시아 등 외부의 위협에 대응해야 할 변경지역이었고, 이러한 지역 정체성 개념은 행정구역 설정이나 이주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개혁개방 후 신장 지역의 지역 정체성은 서부대개발의 중핵지역 중의 하나라는 것과 함께 자치 이상의 권리를 누리는 지역으로 보는 위구르족의 관점 사이에서 매우 상이한 지역정체성이 경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지역경제의 발전과 한족 인구 비중의 증대 등이 현재 신장 지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상대적으로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4. 둥베이 지역의 개발과 지역성 문제

현재 둥베이(東北) 3성은 청말 이래 여러 차례의 인구규모 변화, 행정구역 변화 등을 통해 형성되었다. 랴오닝성은 총면적 14.47만㎢, 인구 4,271만 명(2006년 기준)이고, 지린성은 18.74만㎢, 2,723만 명이며, 헤이룽장성은 46.9만㎢, 인구 3,823만 명이다.[30] 20세기에 한국인들이 만주라고 통칭한 지역은 중국에서는 遼東, 東北, 關東이나 關外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신장

www.kci.go.kr

30) 이정태, 2010, 「중국의 변경인식과 변경정치 –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진 외, 『중국동북연구 방법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82~85쪽.

지역과는 달리 둥베이 지역은 20세기 상반기에 이미 한족 중심의 인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건륭 6년(1741) 遼東의 인구는 13만 8,190명이었으나 1820년에는 131만 4,971명으로 80년 동안 10배나 증가하였다. 1661년에서 1908년까지 약 250년 사이에 요동의 한인은 5,000명에서 1,4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청말 동삼성의 인구를 보면 1907년에는 1천 445만 7,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청조의 '이민실변'의 울타리를 벗어나 적극적인 '이민개발'을 추진한 민국시기에는 인구증가가 더욱 커졌다. 1930년 동삼성의 인구는 이미 2천 995만 1천 명으로 늘었다. 대개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관내 漢人이 동삼성으로 이주하였다.[31]

만주의 인구조사는 1940년에 와서 비교적 신뢰할 만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대체적인 수치로 보면, 관내 인구의 관동 이주는 세 차례의 고조기가 있었다. 제1차 고조기는 1893~1908년로 1770만 명이 랴오닝(500만), 지린(500만), 헤이룽장(150만)으로 이주했다. 제2차 고조기는 1918~1930년으로 360만 명이 관동으로 이주했다. 제3차 고조기는 1940~1945년으로 650만 명이 관동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관동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결과 1893~1945년의 반세기 사이에 인구수는 600만에서 4000만으로 증가하여 6배가 증가했다. 이러한 대규모의 인구 성장은 이민이 주요 요인이었다.[32] 또한 청말의 이민실변에서 민국시기의 이민개발 등 국가 정책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민국시기 중기까지 진행된 이민현상은 '창관둥(闖關東)'운동이라고도 한다. 청말에서 민국시기에 걸쳐 동북으로 옮겨간 이민은 화북 각 성의 이주민, 난민이 많았는데, 특히 山東이 많았다. 山東에서도 登州, 萊州, 靑州의 東3府가 많았고 후에는 沂州府 각 縣으로 확대되었다. 청대 山東에서 동북으로 천입한 이민은 대략 800만 정도이고 전체 민국시기에 山東 이민은 1836만

31) 김영신, 2011,「근대 중국인의 동북이주와 동북개발-농업경제의 발전을 중심으로」, 유지원 외,『이민과 개발-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56쪽; 67쪽; 82쪽.

32) 王曉峰, 2000.11,「東北三省近代人口增長淺析」『東北亞論壇』2000年4期, 88쪽.

4000인에 달했다.[33] 이민자들은 러일전쟁 시기에 이미 만주 남부에는 인구가 조밀하고 토지개발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로 만주 북부지역으로 들어갔다. 1931년 黑龍江省의 인구는 663만 1491인으로 1912년의 2배에 달했다.[34]

당연히 인구수와 인구구성의 변동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어졌다. 1907년 청 정부가 지방행정제도 개편을 단행한 것도 일본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인구수의 증가로 민정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1876년(광서 2년)에서 1904년(광서 30년)까지 '奉天'에만도 府・廳・州・縣 20여 곳이 설치되었고, 그러한 추세는 吉林將軍과 黑龍江將軍 관할구역도 마찬가지였다. 청 정부는 1907년 4월 東三省의 관제 개혁을 선포하고, 奉天・吉林・黑龍江 등 3개 行省을 설치하고 장군체제를 폐지하였다. 徐世昌을 東三省 總督에 임명하고, 唐紹儀를 奉天巡撫, 朱家寶를 길림순무, 段芝貴(후에 탄핵을 받아 程德全으로 바뀜)를 흑룡강 순무로 임명하였다.[35] 만주지역의 행정구역 변화는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구역의 창설과 함께 정치적 변동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조의 발흥지('龍興之地')라는 지역개념은 內地와 동일한 行省 지역으로 통합되어야 할 지역으로 변했다. 민정체제 하의 '동삼성'은 과잉인구의 배출지로서나 부족한 국가재정을 개발하는 신개발지로서나 변방을 지키는 방어기지로서 지역정체성을 갖게 되었다.[36]

1928년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중국을 형식적으로나마 통일하고 '삼민주의'를 내세우며 전중국의 行省化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세 개

33) 范立君・譚玉秀, 2010.1,「近代"闖關東"移民外在特徵探析」『北方文物』, 101쪽. 화북의 이주민들은 주로 만주 북부에 정착했다. 철도망의 구축은 이들의 이동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동북 이민의 고조기였던 1920년대에 동북 경내의 각 철로의 경우 安奉, 吉長(吉林－長春), 四洮, 長圖, 洮昂, 打通, 瀋海(瀋陽－朝陽) 등의 支線이 통하고 있었다.(102쪽)

34) 范立君・譚玉秀, 같은 글, 104쪽.

35) 張敏, 2003.2,「≪盛京時報≫与清末東三省官制改革」『徐州師范大學學報』, 95쪽.

36) 朴章墻, 2001,「清末 民國時代 中國의 邊境 지배와 동부 티베트[Khams]－西康省 창건 과정(1903~1939)을 중심으로」, 西江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91쪽.

의 행성이 설치된 동북지역의 경우에는 성 제도 자체의 변경은 없었다. 문제는 1931년 9·18사변 이후의 동북지역이었다. 일제 관동군은 위성국 '만주국'을 설립하였고, 만주국에서는 매우 많은 숫자의 성을 설치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1945년 일제가 패망했을 때 국공 양당세력은 이러한 일제의 유산을 물려받고 있었다.

1947년 5월 1일 중국 최초의 민족자치구정부인 내몽골자치구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2월 당시 동북지역을 전부 장악한 중국공산당측은 동북 행정구역을 다시 그어 6省 4직할시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만주국 시기의 省 체계를 통폐합한 것이다. 1949년 8월 동북해방구는 동북인민정부를 수립했다. 東北區의 새로운 행정구획에서 6성은 遼東省(省청사 주재지 安東市), 遼西省(성청자 주재지 錦州市), 吉林省(성청사 吉林市), 흑룡강성(성청사 소재지 하얼빈시), 松江省(성청사 하얼빈시), 熱河省(소재지는 承德市) 등이다. 4개의 직할시는 瀋陽市, 撫順市, 鞍山市, 木溪市 등이다.[37]

1950년 3월 徐俊鳴·戈璨은 "新中國의 疆域은 형태상에서 마치 동반구에 우뚝 서 있는 큰 수탉(雄鷄)과 유사한데, 그 동북은 닭벼슬과 머리이고, 신장과 시짱은 아름다운 닭꼬리이다. 하이난따오와 타이완은 하나가 곧게 서고 또 하나가 발을 든(翹起) 다리이다. 北京城은 바로 이 수탉의 목구멍에 있다. 오늘날 이 수탉은 바로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아침해가 처음 떠오를 때 전세계 특히 평화를 애호하는 동아시아의 인민을 향하여 새벽을 알리고 있다."고 쓰고 있다.[38] 중국의 전체 모양이 '수탉'과 닮았다고 한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중국의 지리적 이미지의 하나이다. 또 여기에서 '東北新6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6성과 함께 동북행정구는 그 내부에 4개 행정직할시와 1개 旅大行署를 포함하고 있다. 면적은 88,6957.1제곱킬로미터로 전국의 1/11이고 인구는 4136,7846인으로 전국의 1/12을 차지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직할시와 행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

www.kci.go.kr

37) (轉載)「東北區新行政區划」『山東政報』, 1949.02, 41쪽.
38) 中華地理教育研究會 主編, 1950,「介紹東北行政區」『大衆地理』1卷-3期, 1950年3期, 117쪽.

다. 그 내용은 "동북의 심장－4개 직할시", "우리나라 최대의 중공업지구－遼東省", "關內外의 육상회랑－遼西省", "동북의 곡창－吉林省", "동북의 동북－松江省", "우리나라 최대의 省－흑룡강성", "3大區의 접촉지－熱河省", "동아시아 평화의 보장－旅大行署" 등이다. 이때까지 旅順口와 大連港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다.[39]

앞의 글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4개 직할시와 6성을 살펴보면, 인구 155,1317인인 瀋陽은 당시 동북 제일의 대도시이고, 鞍山은 중국 최대의 鋼業 중심이고, 인구 18,5157인인 本溪는 중공업상의 지위가 안산 다음이고, 인구 3,3954인인 撫順은 중국 최대의 석탄산지로서 '석탄도시(煤都)'라는 명칭이 있다.

遼東省은 중국 최대의 중공업 지구인데, 4개의 행정구 직할시의 공업도 遼東의 광산을 기초로 하고 있다. 遼東省에는 5개 市와 28개 縣이 있다. 5개의 市 중의 하나인 安東市는 나중에 북한을 의식하여 丹東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28개 縣 중에는 항일영웅 楊靖宇를 기념하여 지은 靖宇縣이 있다. 遼東省의 省會는 安東市에 있고, 인구는 858,7666인이다.

遼西省은 명실상부하게 關內外의 육상 회랑이고 遼西省 4개 市의 하나인 山海關은 이 육상 회랑의 문호이다. 遼西省은 대부분 비옥한 충적평원이다. 遼西省은 4개 시와 21개 현을 관할하고 있다. 省會는 錦州市에 설치되어 있고, 인구는 737,1492인이다. 吉林省은 東9省 시기의 舊界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2개 시와 22개 현과 1개 旗를 관할하고 있다. 延吉縣 등 5현은 본래 松江省에 속했고, 1개 기는 郭前旗이다. 성회는 吉林市이고, 인구는 693,5671인이다.

松江省은 중국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성이고, 4개 시와 31개 현을 관할하고 있다. 珠河縣은 항일영웅 趙尙志를 기념하여 尙志縣으로 개명하였다. 성회는 하얼빈시이고, 인구는 514,9909인이다. 黑龍江省은 중국 최북단의 성이다. 이 성은 1개 시와 39개 현과 2개 旗(杜爾伯特旗, 郭後旗)를 관할하고 있

www.kci.go.kr

39) 中華地理教育研究會 主編, 같은 글, 117~119쪽.

다. 성회는 치치하얼시에 설치되었고, 인구는 552,1581인이다.

熱河省은 화북과 동북과 몽골의 3대 자연구의 접촉지대이며, 국방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北京과 전체 화북평원의 천연 屛障이고, 동쪽은 요하평원을 바라보고 있고 동시에 요서회랑을 통제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차하르(察哈爾)와 연결되어 내몽골과 통하는 계단이고 사다리[階梯]이다. 열하성은 2개 시와 16개 현과 4개 기를 관할하고 있다. 성회는 承德市에 있고, 인구는 466,2978인이다.

旅大行署는 旅順, 大連, 金州의 3개 시와 大連, 金縣, 長山의 3개 현을 포함하고 있다. 전쟁 전에는 중국 전체 무역의 1/10 정도를 담당하여 天津을 압도하고 上海의 다음이었다. 인구는 105,4465인이다. 1945년 8월의 중소 우호조약에 의하면 大連은 자유항이고, 旅順口는 中蘇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해군근거지이다. 1950년 2월의 새로운 중소 우호동맹 互助조약에 의하면 1952년 말 이전까지 소련군은 旅順口 해군 근거지에서 철수하도록 되어 있다. "위대한 맹우 소련의 원조 하에서 旅大 지구는 중요한 공업기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의 영구한 報障이다."

1950년 초의 상황에서 보면,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이라서 旅順口에서는 아직 소련해군이 철수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또한 동북지역에는 대행정구가 설치되어 있고, 민족구역자치제는 7개의 旗가 있는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2개의 현은 항일영웅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여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모습의 일단이 나타난다. "위대한 맹우 소련"과는 이후 우정의 부침이 있게 되고, 일본에 대해서는 항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며, 민족구역자치제는 대폭 확대되며, 지명은 문화대혁명시기에 최대치로 개편될 것이다. 1950년대 앞뒤의 한 세대를 보면, 항일전쟁과 내전에 이어 한국전쟁, 사회역사조사, 토지개혁, 민주개혁, 인구이동, 중소대립 등에 영향을 받아 동북지역의 지역정체성의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닭벼슬과 닭머리에 해당하고 6성 4직할시로 구성된 동북행정구는 다른 5

www.kci.go.kr

개의 행정구와 함께 당시에 6개 대행정구를 형성하고 있었다. 6개의 대행정구로 전중국이라는 '수탉'을 구획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의 지방최고 행정구역 단위였다. 6개 행정구는 軍區체계와도 대체로 맞아떨어졌고, 공산당 지역담당 체계와도 맞아떨어졌다. 당시 공산당은 중공중앙 서북국, 중남국, 화북국, 화동국, 동북국, 서남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행정구는 항전과 내전 등 혁명전쟁 시기에 지방당이 비교적 큰 자주권을 가졌던 역사적 경험과 관계가 깊다. 최초의 대행정구는 1948년 9월 6일 화북인민정부가 수립된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동북대행정구는 화북인민정부의 모델에 따라 1949년 8월 27일 수립되었다. 중공 당국은 1948년 10월 도시를 접수하기 시작할 때 군사관제제도인 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1949년 12월 6일 정무원 제11차 회의는 <大行政區人民政府委員會組織通則>을 통과시켜 대행정구가 공식적으로 국가구조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중앙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화북 이외에, 1950년 7월 27일 서남군정위원회가 重慶에서 설립되었을 때 '신중국'은 이미 동북, 서북, 화북, 중남, 서남 등의 대행정구를 갖게 되었다.[40] 1949년 12월에서 1952년 11월 사이에는 화북이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5개 대행정구가 존재했고, 그후에는 화북이 포함되어 6개로 증가했다. 대행정구는 1949년 10월에 1954년 6월까지 대략 5년 동안 성체계의 테두리를 넘어 국가통합과 경제회복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대행정구가 폐지된 계기는 1953년부터 마오쩌둥의 주의를 끈 '東北王'의 칭호가 있는 高崗과 饒漱石의 사건이었다.

1949~1961년은 동북 지역으로 외래 인구가 대거 이주한 시기였다. 1961~1978년은 인구유입이 점차 줄어들던 시기였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여러 차례의 정치운동과 관련된 비자발적 이주현상도 있었다. 이 문제는 기존의 연구가 없지 않지만, 대구역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해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사용한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개혁개방 이후 동북은

40) 華仁康, 2011.1,「建國初期大行政區的演變」『滄桑』, 67쪽.

www.kci.go.kr

점차 이출지역으로 변화했다. 개혁개방 이전 동북지역은 중국의 중공업 기지였지만, 개혁개방 이후에는 '노후공업지대'로 전락하였다. 대행정구가 폐지되고 동북3성으로 1급 행정구역이 정비된 이후에서 성 이하의 단위에서는 종종 지명변경과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다.

대권역 인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주요 사항 중의 하나는 1960년대 중기에 중국에서 제기된 '三線'建設 전략이다. 三線은 중국의 전국전략의 大後方 지역을 가리킨다. 삼선건설은 중인분쟁, 베트남 전쟁과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국제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일선 지구는 연해와 沿邊疆 지역에 있는 省區이고, 삼선은 중국 전략 대후방의 省區이며, 일선과 삼선 사이에 있는 지역이 이선지구였다. 대삼선 지역은[41] 대개 교통이 불편하고 공업수준이 연해 지역보다 낙후한 상황이었다. 1964년 8월 중순 마오쩌둥은 '삼선건설' 문제를 제기하고 대도시와 연해의 공장을 삼선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成昆, 川黔, 滇黔의 三條 철로를 잘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삼선' 건설의 필요에 의해 국가는 3차 5개년 계획(1966~1970) 등에 대해서 비교적 큰 조정을 실시하였다. 삼선 건설의 첫 번째 단계는 1964~1968년으로 그 건설의 중심은 서남 지역에 있었다. 1969년에서 1973년까지의 2단계는 서남과 함께 湘西, 鄂西, 豫西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삼선건설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42] 10년의 삼선 건설에서 중요한 지역은 연해와 대후방인 서남이었고, 변강에 해당하는 동북과 신장은 투자나 관심도 등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들 지역은 중소 분쟁의 와중에서 국경충돌이 벌어지는 곳이었다.

마오쩌둥과 당시 집권세력의 실험적인 대형 프로젝트는 대구역 개념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했을 것이지만, 그 실태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

41) '大三線' 지역은 長城 이남, 京廣線 以西의 광대한 지역으로 四川, 貴州, 雲南과 서북의 陝西, 青海, 甘肅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고, 또한 中原의 豫西, 鄂西, 華南의 湘西, 粵北, 桂西北 및 華北의 山西와 冀西 지역을 포함한다.

42) 有林·鄭新立·王瑞璞 主編, 1993, 『中華人民共和國國史通鑑 第2卷(1956~1966)』, 當代中國出版社, 193~195쪽.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대삼선' 건설이 대구역을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중국인의 대구역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인위적인 지역 구분은 대구역의 지위나 역할에 일정한 변화는 줄 수 있을 지언정 대형 프로젝트가 끝나면 존재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1950년대 동북에 독립왕국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 제거당한 가오강과 라오수스 사건은 중앙과의 관계에서 동북지역이 얼마나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항일전쟁과 내전 시간에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던 중공중앙 지역국처럼 대행정구도 상대적으로 상당한 독립성이 있었거나 독립성이 상황에 따라 강화될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의 관심사는 동북과 신장과 같은 대구역(대권역)에 대한 중국인들의 지역인식이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 어떤 양태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21세기 첫 10년동안에 중국의 전체 육지변강을 포괄하는 변경지역 연구 프로젝트가 추진될 만큼 중국사회 일각에는 내지와 변강의 개념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신장의 경우에는 南疆과 北疆 등의 확연한 지역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규모 등의 이유로 별개의 省이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동북지역에는 9성, 6성, 3성 등 시기별로 각기 다른 숫자의 성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신장과 동북 사이에는 '신중국' 수립 초기에 이미 인구가 말해주는 지역정체성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민국시기에 만주에는 이미 "胡煥庸線"이[43]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반면에 신장은 '신중국' 초기에 胡煥庸線의 왼쪽인 인구희소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신장은 사막과 건조지대가 많긴 하지만 관개시설이 건설될 경우 생산성 있는 경작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대가 많았고, 이 점은 1950년대 이후 신장에 설치된 '생산

43) 중국의 지리학자 胡煥庸은 1935년 헤이룽장 아이훈(瑷琿, 지금의 黑河)에서 윈난의 騰沖까지 연접하는 직선은 중국 인구분포의 중요 분계선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선은 東多西少라는 인구분포의 거시적 구조를 보여주는데, 중국 지리학계서는 이를 胡煥庸線이라고도 한다.

건설병단'의 존재가 잘 알려주고 있다고 하겠다.

5. 맺음말

일반적으로 중국의 지역구조는 이원적·다원적·동심원적 지역구조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은 이념형 내지 도식일 뿐 실제의 구조와는 다른 것이었다. '내지(內地)'건 '변강(邊疆)'이건 각각의 '대구역'과 그 내부의 중소 규모의 구역과 지역적 특수성이 존재하였다. 물론 내지와 변강 등 대체적인 이원성은 존재하였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런 이원성으로 인해 1960년대의 '대삼선' 건설 운동이나 1990년대말에 '서부'라는 개념이 큰 논란이 없이 유통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에 정치적·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국토개발을 기획했던 중국 집권세력은 1970년대 후반에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가치에 따라 동남 연해의 산업기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전국 규모의 경제불균형은 1990년대에 '서부'라는 지역 개념을 부각시켰고, 1999년 이후 '서부대개발전략'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삼선건설'과 같은 과거의 경험이 없었다면, 서부대개발전략과 같은 전략기획은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본고에는 중국의 대구역 개념에 주목하여 대구역 정체성을 변화시킨 요인들을 검토해 보았다. 다시 말해서 여러 지역 층위에서 청말 이래의 여러 충격이 대구역 정체성과 지역 특성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해 보았다. 19세기 후반 이래 '변강' 개념은 중국학술계나 언론계, 정치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정한 비중과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1912년 중화민국이 청대의 지리적 유산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변강' 처리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만약 혁명운동 과정에서 표출된 한족 민족주의가 액면 그대로 반영되어 중화민국이 한족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경우 '변강민족'들의 태도와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www.kci.go.kr

는 군사적 장악, 경제적 통합, 사회문화적 동화 등이 조치가 필요했다. 신해혁명 시기에 제기된 '五族共和'는 이런 고민의 산물이었다.44)

중국의 대구역 인식은 중국 공산당의 혁명, 항일운동 시기 이래로 큰 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그 틀의 색깔은 시기에 따라 상당히 달랐다. 20세기 내내 신장과 둥베이 지역에는 지역특성과 정체성을 일정 정도 변경시킬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 변화, 사회적·경제적인 변화가 축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현재까지 두 대구역의 '변강' 정체성에는 변동이 없다.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진행된 변화 중에는 성급 이상의 행정구역 변동, 인구변동, 전국규모 지역개발 등의 요인을 주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 들어와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대행정구의 실시와 폐지, 민족구역자체제의 전면 실시라고 할 수 있다. 민족구역자치제는 헌법상 '신중국'의 이중적인 정체성, 즉 '사회주의국가'와 '통일적 다민족국가' 중에서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었다. '변강'이라고 통칭되는 지역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지역에는 그 지역의 토착·정착 '소수민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충격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래 이민과 이주였다. 근대와 현대에도 중국에서는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걸쳐 가장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일어난 곳은 동북변강과 신장지역이었다. 내몽골과 칭하이 등의 인구 이동도 만만치 않게 많이 일어났으나, 지역구조의 변동까지 초래한 것으로는 앞의 두 지역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1950~60년대에 신장과 둥베이에는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한족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미 한족 인구가 절대 다수를 점하던 둥베이에서보다는 신장 지역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한족 인구는 시기가 좀 다르지만 20세기 초반과 중반에 각 대구역의 북부 지역으로 이주했다. 인구이동이 지역의 정체성을 크게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변강이라는 정체성과 역할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www.kci.go.kr

44) 요코야마 히로아키 지음, 이용빈 옮김, 2012,『중화민족의 탄생』(원제 : 中國の異民族支配), 한울아카데미, 117쪽.

인구이동은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을 불러왔다.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 설치된 6개의 대행정구는 연방제 논의가 없지 않았고 지방자치가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인 중국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최상위 지방행정제도였다. 대행정구의 폐지는 '동북왕' 가오강과 라오수스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省 제도가 정비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했다. '신중국'에서 성급 행정단위는 성과 시 이외에도 자치구가 있다. 이것은 1950년대 초반에 그 기틀을 잡았는데, 본고에서 검토한 동북과 신장은 모두 변강이었지만, 그 제도적 형태는 달랐다. 동북은 3성으로 편성되었지만, 신장은 자치구로 변경되었다. 동북은 탄탄한 공업기반과 압도적인 한족 인구의 존재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일반 성으로 편성되었고, 신장은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압도적 인구비율로 인해 자치구로 변경되었다.

본고에서는 인구구성의 대체적인 변화와 지방행정체제의 연동관계에 주목하여 대행정구 등 대구역 단위의 행정구역이나 대구역 관련 현상의 일단을 주목하여 보았다.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의 대구역 중에서 변경지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변강이라는 정체성은 크게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차후에는 좀더 면밀하게 인구변동, 지명변화, 행정제도변화 등 각론을 검토하여 그것이 대구역 지역정체성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는 메카니즘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www.kci.go.kr

투고일 : 2012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 2012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18일

참고문헌

(轉載)「東北區新行政區划」『山東政報』, 1949.2.

京時報, 2003.2「与清末東三省官制改革」『徐州師范大學學報』.

김영신, 2011,「근대 중국인의 동북이주와 동북개발－농업경제의 발전을 중심으로」, 유지원 외,『이민과 개발－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童遠忠, 2011,「新疆建省与近代新疆社會變遷」『新疆大學學報(哲學・人文社會科學版)』 2011年7月 第39卷第4期.

박선영, 2008,「중화인민공화국의 판도 형성과 新疆－新疆의 특수성과 新疆생산건설병단의 국내외적 도전」『역대 중국의 판도 형성과 변강』, 오산시 : 한신대학교출판부.

朴章培, 2001,「清末 民國時代 中國의 邊境 지배와 동부 티베트[Khams]－西康省 창건 과정(1903~1939)을 중심으로」, 西江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范立君・譚玉秀, 2010.1,「近代"闖關東"移民外在特徵探析」『北方文物』.

楊 軍, 2007,『中國區域發展歷程』長春 : 長春出版社.

倪麗俠, 2010.3,「民國時期東北、華北的行政區划問題」『歷史學習』.

王曉峰, 2000.11,「東北三省近代人口增長淺析」『東北亞論壇』2000年-4期.

姚凱・胡德, 2011,「特殊行政區划体制下的城市規划探索－以新疆石河子市總体規划爲例」『城市規划學刊』2011年 01期.

요코야마 히로아키 지음, 이용빈 옮김, 2012,『중화민족의 탄생』(원제 : 中國の異民族支配) 한울아카데미.

有林・鄭新立・王瑞璞 主編, 1993,『中華人民共和國國史通鑑 第2卷(1956~1966)』當代中國出版社.

이강원, 2002.3,「중국의 민족식별과 민족자치구역 설정 : 공간적 전략과 그 효과」『대한지리학회지』37-1.

_____, 1999.12,「'邊疆'과 '民族'의 생산 : 중국 따싱안링 산지 어룬춘－다민족지구 현지조사 보고」『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이동진 외, 2010,『중국동북연구 방법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준갑, 2008.4,「明淸時代 地域史硏究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摸索」『中國史硏究』第53輯.

정재호, 1999,『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론 : 분권화 개혁의 정치경제』나남출판.

中華地理敎育硏究會 主編, 1950,「介紹東北行政區」『大衆地理』1卷-3期, 1950年3期.

蔡文春・楊永平・楊德剛, 2008,「新疆區域發展的空間模式硏究」『干旱區資源与环』第22卷 第9期.

肖之興, 1980.2,「駁齊赫文斯基對我國新疆歷史的歪曲」『中央民族學院學報』.
劉 磊, 2008,「人口預測方法對比分析－以東北三省爲例」『現代商貿工業』.
劉含若, 1991,「東北人口史再探－兼評≪中國人口≫東北三省歷史人口部分」『人口學刊』.
華仁康, 2011.1,「建國初期大行政區的演變」『滄桑』.
張 敏, 2012,「≪盛張永理,「我國行政區划層級歷史變遷－兼談其對省直管縣体制改革的啓示」『北京行政學院學報』.
張華騰, 2010,「袁世凱對東北問題的關注与東三省改制」『中國邊疆史地研究』2010年 第2期.
張觀華, 2008,「我國東、中、西、東北地區各省、市、自治區行政區划、人口、部分行業職工人數及工資總額」『西部金融』.
齊清順, 1993,「"新疆"的由來和發展」『新疆地方志』.
趙玉姣, 2011,「中國行政區划改革的初步探討」『法制与社會』, (18).
피터 C. 퍼듀 지음, 공원국 옮김, 2012,『중국의 서진－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사』도서출판 길.
黃定天·白云,「俄羅斯著名中國學家 C·几·齊赫文斯基」『黑龍江社會科學』2009年第4期(總第115期)

www.kci.go.kr

■中文概要■

新中國成立以來中國人對新疆・東北區域的認識變化

朴章培

与民国時期相比，1949~1950年代初期的新中国行政体制雖然没有発生本質上的変化，但是也有値得注意的変化。当時設置了五六个大行政区，在‘省政府’中間加了‘人民’二字，改為‘省人民政府’。与此同時，50年代的中国還実行了民族区域自治制度這様一个非常独特的地方行政制度。関于這一問題，不但要研究行政区域演変，更応該仔細探討其統治机构和地名変化。

本稿着眼于類似于大行政区的大区域這一存在，分析了新中国初期中国社会対大規模地域単位的認識変化。主要分析対象為新疆和東北地区。新疆一直以来被称為西域，而東北在清朝時期被視作‘竜興之地’曾被封禁，是三大将軍管轄区域。東北名称始于清末‘東三省’，日本侵略東北之后‘東北’這一名称開始固定下来。

最近，随着中国一些学界対這両个地区推行‘東北工程’和‘新疆項目’，国際上対這両个地区的関注也随之提升。這些工程項目的推行顕露了根植于中国学界的大区域思維。這些大区域大体上類似于新中国初期的大行政区。従這点来講，分析大区域単位以及剖析其認識変化将有一定的研究价値。

www.kci.go.kr

關鍵詞：大區域, 行政區劃, 新疆, 東北, 地域認識